



# 인하대병원



2009 인하대병원 \_

변화·혁신(I Know School) 과정 실시

| 2009. 7. 15 ~ 12. 10



## Change & Innovation





2009. 07+08

# CONTENTS

Jul. Aug Vol. 76

|    |                   |   |
|----|-------------------|---|
| 04 | 월례조회사             | 역경을 이겨내는 힘!                                   |
| 06 | 행복을 전하는 글         | 정성껏 살아간다는 것은                                  |
| 07 | Well-being Report | 웰빙 비칸스를 위한 후다닥 디카 정복하기!                       |
| 10 | 의학정보 1            | 노안성난청   |
| 12 | 의학정보 2            | 질병의 조기 판독기 - 소변색갈                             |
| 14 | 의학정보 3            | 자궁근종과 하이푸(HIFU)                               |
| 16 | 통증치료실 소개          | 몸 전체 여러 형태의 통증진단과 치료                          |
| 18 | 건강책갈피             | 훈터치료, 주름치료 프락셀 레이저                            |
| 20 | 인하인들의 그곳          | 환상의 여행, 기쁜 마음만 간직<br>목우와 산딸기 이야기<br>휴식이 있는 그곳 |
| 24 | 모범직원 연수기          | 이부자리 까르르~~ 싱가포르와 옆 동네를 다녀와서                   |
| 26 | 글이 머무는 풍경         | 수술실 간호사 워크숍                                   |
| 28 | 감사의 편지            | 의사의 눈빛만 봐도 마음에 안정이.....                       |
| 29 | 톡톡약물상담            | 신장질환에 대한 궁금증                                  |
| 30 |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 정말...운동을... 해야 할까요? --                        |
| 33 | 병원소식              |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
| 37 | 자원봉사 안내           | 인사동정 / 자원봉사자모집                                |
| 38 | 사회복지소식            | 아름다운 희망                                       |
| 39 | 알립니다              | Global Inha / 퀴즈 퀴즈 제49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

오늘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희망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오늘 날도 경제난으로 상당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웃는 낮이어서 반가운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 직원 전체에 퍼지고, 오늘 함께 보는 이 슬라이드로 느끼시는 게 있고, 희망을 가지고 웃음 속에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휴가철입니다. 교직원 모두 몸 건강히 휴가 잘 다녀오시고, 새로이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뛰어봅시다.

”

## 화이팅~! 코리아 역경을 이겨내는 힘!



### 나의 조국 대한민국

불과 50여년 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막 벗어난 그들에게 전쟁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선부른 희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 배고픔이 대물림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너무 가혹했고 이들이 곧 주저앉아 삶을 포기했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라도 자식들에게 있을 내일을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모두 120여 개국 한국의 국민소득은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비해 고작 76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62년 한국은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은 차관의 담보로 잡혔습니다.

낮선 땅 서독으로 간 어린 간호사들이 실력을 인정받기 전, 맨 처음 한 일은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천 미터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서독은 한국대통령을 초청하였고, 고국의 대통령을 보기 위해 한국인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연설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은 목이 메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해간 연설문을 접고 같은 말을 되풀이 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 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까.”

광부들은 서독 대통령에게 큰 절을 울리며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도와 주십시오!”

목 놓아 우는 광부 간호사들을 두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서독 국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근대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 희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의 전투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의 중동건설 현장에서도 피 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리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가발 공장, 봉제 공장, 신발 공장, 섬유 공장에서 리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출 상품을 만들며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1950년, 그로부터 50년 후 나의 조국 대한민국

건설 산업 규모 세계 3위, 단일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세계 5위, 철강 제조 산업 세계 5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세계 무역 규모 12위권, 외환 보유 세계 4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너희들 또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2009년 7월 1일

인하대병원 병원장 박 승 림





## 정성껏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인 | 시인

바쁨 속에도 기쁨과 평화가 있다  
유순한 마음, 좋은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정신 없이 바빠도  
짜증이 나지 않고 즐겁다

나의 삶이 노래가 된다는 것은  
그럭저럭  
시간을 메우는 데 있지 않고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살아가는 데 있다.

달덩이 얼굴은 NO! 바다는 파랗게,  
키는 3cm커 보이게~~

## 웰빙 바캉스를 위한 후다닥 디카 정복하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필수품이 됐고 특히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무리 성능 좋은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라도 기본적인 촬영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평범한 사진만 찍게 된다. 약간의 팁만 알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촬영기술로 전문가다운 추억을 담을 수 있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는 더 이상 편리함과 가벼움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DSLR 카메라 부럽지 않은 최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신제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첨단 기능을 자랑하지만 무겁고, 조작이 어려워 DSLR 입문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로 더욱 편리하게 사진 찍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카메라의 이해와 촬영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컴팩트형이고 렌즈를 교환하여 촬영할 수 있는 것이 DSLR이다. 디카 매니아 층이 생기면서 DSLR 카메라도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 카메라의 특징은 렌즈를 교환해가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의도한 바에 따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예전엔 전문가 중심의 카메라였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엔 아마추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카메라는 간단한 촬영 요령만 알아도 순간의 장면을 놓치지 않고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쉽고 후다닥 활용할 수 있는 디카 찍기 실전에 들어가 보자.

실제 휴가지에서 촬영 후 디카 액정화면으로 봤을 땐 뭐 그런데로 괜찮은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엉뚱한 장면에 초점을 맞춘 사진이나 아이들이 움직인 탓에 흔들린 사진 등등, 역시 사진이 잘 나오는 DSLR카메라를 살 걸 그랬다며 후회도 생긴다. 그러나 몇 가지 촬영 팁만 알고 있으면 DSLR카메라 못지않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물속촬영은 워터 하우징이 해결사

물가로 떠난 경우 카메라 물이라도 될까 겁이 나고 계곡이나 바다에 카메라를 빠뜨려 기분을 망치는 일도 다반사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방수! 워터 하우징(마린 팩)이 해결사다. 가격은 10만 원선이다. 자신의 디카에 맞는 하우징을 하나 장만하면 물에 빠질 걱정도 없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아이들도 찍을 수 있어 사진 표현의 영역이 한층 넓어진다.

모 업체에서는 수심 40M까지 방수가 되는 전문가용과 수심 3M 내외까지 방수가 되는 아마추어용 두 가지 제품을 내놓았다. 또 수중촬영은 불가능하지만 잠마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 바닷가에서의 촬영

바닷가에서는 백사장이나 바닷물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면 상대적으로 인물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DSLR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 값보다) 노출을 +1.00이나 +1.5정도에 맞추면 인물을 살릴 수 있다.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에는 반 셔터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해를 등진 상태로 반 셔터를 사용하여 노출을 결정한 다음 인물 촬영을 하거나 카메라에 있는 스트로보를 강제 발광토록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노출 값을 보정할 수 있다. 또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분명 파란색의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하얗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파란 하늘과 바다를 담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무조건 태양을 등지고 촬영하는 방법인 순광으로 찍어야한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해를 등지고 피사체(사진에 찍히는 인물 등)가 해를 마주보고 찍으면 된다.

### 인물 사진 찍기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빛을 잘 활용해야 한다. 찍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섰다든지, 햇살이 강한 날 나무 밑에 피사체를 놓고 찍으면 심중팔구 결과는 엉망이다. 배경만 밝고 사람은 검게 나오거나 누뜻있 그림자로 인해 얼굴에 얼룩이 지게 된다.

따라서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태양의 위치가 인물에서 볼 때 2시나 10시 방향에 있어야 화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 3cm 더 커보이게 촬영하기

앵글이나 구도를 바꿔도 사진은 달라진다. 눈높이에서 찍는 수평 앵글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칫 피사체의 표정이 굳어 밋밋한 사진이 되기 쉽다. 어찌다 한 번은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하이앵글'이나 반대로 '로 앵글'로 찍으면 재미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을 찍어줄 때 하이 앵글은 절대 금물! 머리는 크고 다리는 짧게 나오는 이른바 큰 바위 얼굴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폴사이즈의 여성의 사진을 찍을 때는 로 앵글로 선택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다. 그러나 얼짱을 만들기 위한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에는 하이앵글로 45도 측면 방향으로 가름한 얼굴과 큰 눈을 만들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로 앵글이 보다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 인물 사진은 정 중앙에 놓고 찍는 것보다 좌우 한쪽에 살짝 치우치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 아이 사진은 아이 키로 찍어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을 촬영하는 일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다. 아무리 여기를 보라고 외쳐대도 소용없는 일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눈높이 촬영을 하는 것, 눈높이를 맞춘 수평 앵글을 잡는 것이 좋다.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출수록 생동감이 넘치는 표정을 담을 수 있다. 또 가끔은 바닥에 엎드려 찍어보자. 천연미소를 담은 작업에 웃 좀 더러워진다면들 어찌할소냐! 그만큼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의 표정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배경은 조금만 살리고 '쫄'을 적극 활용한다면 자연스러운 예술적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 아이들 사진은 전신촬영 보다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사진이 된다.

### 야경을 그대로 담으려면

해가 진 뒤 찍은 사진에 대해선 실제의 야경과 너무 달라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어둡다고 무턱대고 플래시를 사용해했다가는 사진 속 인물은 그야말로 '달덩이'가 되고 만다. 또 플래시 없이 촬영하면 흔들린 사진이 되고 만다. 어떻게 하면 멋진 야경을 담을 그대로 담을 수 있을까? 가장 추천할 방법으로는 일몰의 경우 역시 반 셔터를 이용하여 하늘에 노출을 맞추고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상황에 맞춰 주위의 물건이나 담벼락 등 움직이지 않

는 지지대를 이용하면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플래시보다 더 좋은 것은 주변의 환경을 조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개 주변을 돌아보면 약간의 불빛은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고 가로등 불빛 앞에 피사체를 두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배경만 밝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빛이 있는 곳에서 한 발짝 정도 뒤에 피사체를 두는 것이 인물도 살리고 배경도 살리는 방법이다. 또 요즘 디카에는 야경 촬영 모드가 있어 초보자라도 어렵지 않게 야경을 찍을 수 있다.

제대로 잘 찍어 온 디카의 사진을 넘겨보며 다시 그때의 기분을 느끼고 무더운 여름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다면 이번엔 다녀온 휴가는 분명 재충전을 온전히 하고 온 '월빙휴가'가 되지 않을까?

글· 이정희 | 자유기고가



### 좋은 사진 찍기 Tip

사진 찍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구도를 못 잡으면 사진은 조잡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사진을 찍는 마지막 단계를 구도라 할 수 있다. 좋은 구도의 사진 촬영을 위해 다음을 꼭 기억하자.

- 하나,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자;** 작은 사진 한 장에 너무 많은 것을 넣지 마라.
- 둘, 가까이 가라;** 사진이 좋지 못한 것은 너무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이다.
- 셋, 발을 많이 움직이며 찍어라;** 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방향이나 거리를 바꿔서 다양한 구도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 넷, 상반신을 찍을 때 무릎이나 발목을 자르지 마라;** 어설피게 무릎을 자르는 것보다 허리를 자르거나 다리를 살리는 것이 낫다.
- 다섯, 과감한 선택을 하라;** 인물인지, 풍경인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라. 괜히 어설피 사진이 되기 십상이다.
- 여섯, 반 셔터를 활용하라;** 반 셔터를 잘 활용하면 오토포커스(자동초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진이 훨씬 또렷해진다.
- 일곱, 일반 컬러사진 이외에도 흑백, 세피아갈색 톤의 올드한 분위기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내보자.**

노화에 의해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노인성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하며, 그 발생연령과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주위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노화로 인해 청력이 나빠지는 노인성 난청의 정확한 국내 정보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통계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로 볼 때 노인성 난청의 유병율은 65~75세에서 25~40%, 75세 이상은 38~70%이며, 이렇게 보면 현재 노인성 난청의 인구는 최소 170만 명으로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 회화 음역은 장애를 받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고주파수 영역에서 자음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고 점차 서서히 진행하면서 어음 분별이 안돼서 사람이 많은 곳이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말소리의 구별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리는 들리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구별하기 힘들고 흔히 소리가 “웅 웅” 거린다고 호소합니다. 난청은 대개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며 이명을 동반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어 조기발견 및 교정이 필요합니다.

## 노인성난청 “웅웅” 거림 호소, 말소리 커졌다면?

### 노인성 난청 발생시기

노인성 난청은 발생시기가 개인마다 편차가 크고 객관적인 임상적 청각학적 연구가 어려워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연구결과로는 달팽이관과 청각 중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기후와 식이, 대사, 동맥경화증, 스트레스와 유전적 요인 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 Hardness of Hearing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음에 의한 청각 외상에 의한 결과로도 알려져 있으나 밀접한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청신경 조직은 재생이 힘들므로 청력을 다시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좀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평가해 가장 적절한 보청기를 골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고립감과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청력이 천천히 저하되므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재활을 위해 상담하는 경우가 적고, 청력 감소가 생긴 후 10년이 지나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청력 감소가 있는 노인 중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18% 정도 밖에 안되며 이중 75% 이상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활치료는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보청기가 청각을 정상화 시킬 수는 없으나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는 있으므로 노인환자에게 안심을 시키며 계속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난청은 청력장애를 일으킬 다른 질환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와 진찰을 통해 혹시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의 예방

노인성 난청의 예방에 대해서는 원인 인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방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귀에 해로운 약물이나 주위 소음 등 일반적인 난청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 이외에 노인성 난청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위 환경과 노인성 난청의 관련성에 대하여 남자에서는 담배, 술, 두부외상 등이, 여성에서는 약물 복용력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주위 소음을 가능하면 줄이며,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단순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바꾸어 이야기하고, 구의 끝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어주면 환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서 70cm ~ 1m 정도 떨어져서 정상 혹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청기 착용도 어려울 정도의 심한 달팽이관 손상이 있는 양측의 고도난청 환자에게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시기의 환자의 경우 언어 능력이 좋고 난청으로 지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와우 이식의 좋은 대상이 됩니다.



**김규성 교수** | 이비인후과  
(대한평형의학회 간행이사,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이사)

- 전문분야 : 어지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 진료시간 : 수 · 금(오전), 화(오후)
- 문의 : 이비인후과 ☎ 032-890-2420

우리 사회에서 안경과 달리 보청기는 신체 장애의 인상을 강하게 주는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권하기도 어렵고 권유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화를 자연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킬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재활수단의 활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구구조 상 어쩔 수 없이 노인사회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보청기를 착용하고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당당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관독기 - 소변색깔

“소변색깔만으로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금물”



**김문재 교수** | 신장내과  
 (대한고혈압학회 무임소이사)  
 • 전문분야 : 신장질환, 고혈압  
 • 진료시간 : 월·목(오전), 화(오후)  
 • 문의 : 신장내과 ☎032-890-2229



## Disease Detector, Urine Color

일반적으로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탁하면 몸에 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신체 질환 때문에 소변 색이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변 색깔은 무색에서 짙은 노란색까지 다양하다. 이는 소변의 농도, 산도 및 화학물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소변이 색깔을 띠는 것은 유로크롬이라는 색소 때문이다. 수분섭취가 적거나 탈수로 소변이 농축되면 짙은 노란색이 된다. 반면 수분섭취가 많거나 음주 중에는 소변 양이 늘어 거의 색깔을 띠지 않는다. 소변은 과일 채소 등에 포함돼 있는 색소나 비타민, 항생제, 결핵약, 고혈압약 등 약물에 의해서도 노란색, 붉은색, 푸른색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사실 일반인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붉거나 검붉은 소변색 때문에 병원을 찾는 수가 많다. 이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혈뇨로 진단된다. 콩팥에서 요관, 방광, 요도를 거치는 소변의 길 가운데 어디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심한 운동이나 심신이 피로할 때 혈뇨가 나올 수 있으나 며칠간 계속된다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혈뇨 외에 용혈에 의한 혈액소나 근육세포 파괴로 유리된 마이오글로빈 등이 검붉은 소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과잉운동으로 많이 사용한 근육이 깨지면서 근육내의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일시적으로 혈액 안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또, 요로가 감염되면 소변이 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소변 양이 많아지고 거의 무색일 때는 당뇨나 요붕증일 수도 있다. 이처럼 신체 질환으로 인해 소변 색이 변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거의 없고 생긴다고 해도 그 양이 적다. 심한 운동을 했거나, 고열이나 탈수가 됐거나 육류를 많이 먹은 경우 거품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욕조에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소변을 통해 단백질이 흘러나오는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다. 단백뇨는 만성신장염, 신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신질환으로 생길 수도 있다. 거품 나는 소변이 지속되면 조기에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소변만큼 눈으로 알 수 있는 손쉬운 진단 방법도 드물다. 따라서 소변 색깔이 의심스러우면 원인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 물론 신체 질환 때문에 소변이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순한 발상이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 이용하게 되는 흰색의 양변기를 “질병의 조기 판독기”로 활용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다.

자궁근종과 하이푸(HIFU)  
이제는 자궁근종을 수술 안하고 치료할 수 있다.

## 자궁근종 녹여서 없애자



자궁근종은 여성의 생식기관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의 약 20~30%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지요.  
그 중 약 반 정도가 증상을 나타내며, 증상으로는  
월경의 양이 많거나 월경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부부관계 할 때의 통증,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또는 참을 수 없이 급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  
변비 등이 있습니다.



송은섭 교수 | 산부인과

• 전문분야 : 부인과중양

• 진료시간 : 월(오전), 화·수(여성암센터)

• 문의 : 산부인과 ☎ 032-890-2270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Therapy System

지금까지 자궁근종은 거의 대부분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개는 자궁전체를 들어내, 다시는 근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전체자궁제거술을, 일부에서는 자궁의 입구를 남겨 성감대를 유지하는 부분자궁제거술을 받았지요. 또 임신을 하고 싶거나 다른 이유로 자궁을 계속 갖고 싶은 분은 자궁의 혹만 제거하는 자궁근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궁의 혹만 제거하더라도 혹이 다시 생겨 1~2년 후에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도 10~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사람들의 약 20%에서 수술 후 수술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수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방법들이 찾아지고 있는데, 호르몬주사요법, 자궁동맥차단법, 그리고 하이푸 등이 대안입니다.

1940년도에 초음파가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고, 이후 유방암, 골에 전이된 암, 간암 등의 치료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이푸는 위험이 아주 적은 방법으로 몸 안의 아주 작은 점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인데, 치료 포인트 외의 다른 곳이나 초음파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다른 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 하이푸로 자궁근종 시술

인하대병원은 2008년 7월 국내 최초로 초음파영상조준하 하이푸를 도입하여 자궁근종에서 현재 약 20명에게 약 80번의 시술을 하였습니다. 치료할 때는 치료 할 곳을 잘 디자인해야 하므로 자기공명사진(MR)을 찍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는 한 점 한 점을 치료하여 이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 면을 이루고, 면들이 모여 한 공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횟수는 근종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충의 계산으로 하면 직경 1cm 당 한 번 정도의 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직경이 5cm면 약 5번, 직경이 10cm면 약 10번 정도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근종이 가운데는 크지만 주위로 갈수록 작아져 직경의 길이 보다는 적은 횟수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근종 하나 당 약 4~5번 정도 치료하였습니다. 치료의 시간은 한 번에 한 시간 반 전후 걸리고 있습니다. 작은 창자나 큰 창자, 방광 등의 손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월경량은 반 정도에서 매우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통증은 70%에서 많이 호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만 자궁을 간직하고 근종을 파괴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은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푸의 장점은 수술을 위한 피부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자궁근종을 치료하는데 하이푸는 꼭 한 번 짚어볼 만한 방법으로 권유드립니다.

# 통증치료실 소개

## 몸 전체 여러 형태의 통증진단과 치료



**차영덕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치료실  
• 전문분야: 통증치료  
• 진료시간: 수(오전), 월·금(오전·오후)  
• 문의: 통증치료실 ☎032-890-3921

### 통증이란?

통증이란 의학적으로 조직이 손상을 당하거나 손상이 임박했을 때 손상과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감각을 말한다. 이는 누구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매우 주관적인 감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지금도 이러한 통증의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통증은 우리 몸에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로운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가 된다. 즉 바늘에 찔리거나 불에 데이려는 순간 우리는 급작스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신호를 통해서 회피함으로써 더 큰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위염, 충수돌기염 등과 같이 몸에 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로운 통증은 급성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일 또는 몇 달, 심하게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통증이라도 우리 몸에 이로우니까? 이와 같이 필요 없는 경보를 계속 울리는 통증은 만성화를 겪으면서 그 자체가 질병이 되어버린다. 또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통증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해로운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 통증의 악순환

어떤 이유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극은 신경을 따라 일부는 뇌로 들어가 아픔을 느끼게 되고, 일부는 척수 반사로를 통해 다시 그 부위의 운

동 신경과 교감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이들 신경이 자극되어 흥분되면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노폐물이 쌓여 이것이 다시 통증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심해진 통증은 다시 운동 신경과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를 통증의 악순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통증을 전달하는 길을 일시적으로 막아주어야 한다.

### 통증치료실이란?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불안, 스트레스, 공해, 가정적 불화, 과도한 긴장, 갈등으로 인하여 건강했던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게 되면 환자는 정신과까지 의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검사로는 밝혀지지 않는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은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 여러 과를 방문하며 고생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질환, 망막질환, 공황장애, 자율신경질환, 기관지 천식, 관절염, 당뇨병성신경염 등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 역시 환자들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지만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통증치료실이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급성통증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주로 신경차단 치료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전문적인 학과이다. 신경차단의 효과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면역, 내분비 기능, 자율신경 조절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로서 신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고통을 제거하거나 최대한 감소시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 신경차단치료란?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 혹은 복통과 같은 급성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만성통증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인을 규명하기도 힘들고 그 치료는 더욱 더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경차단치료는 아주 가는 바늘을 통해 신경이나 그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열응고법, 냉동법을 사용하여 신경의 흥분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 신경의 흥분을 없애으로써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던지, 외상이나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대부분 통증의 악순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짧은 작용시간을 갖는 약물을 최소량으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통증을 없앨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약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며 신체에 다른 부작용을 남기지 않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 할 수 있다.

### 통증클리닉에서 치료하는 질환

#### ●요통의 치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디스크관련 질환 뿐 아니라 이름은 생소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더 흔한 근근막통증증후군과 척추관협착증, 추간관절증 등과 하지통증을 경막외치료, 추간관절치료, 선택적신경근치료,

통증유발점치료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치료한다.

#### ●목, 어깨 및 상지 통증의 치료

목 디스크, 경추추간관절증, 변형성척추증, 외상성경부증후군등과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 오십견, 그 외의 어깨와 팔에 생기는 통증을 치료한다.

####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치료

대상포진은 대부분은 피부병변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는데 보통 노인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호발하며,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많이 피곤한 경우에 잘 발생한다. 이러한 대상포진은 약 3주 정도면 피부병변은 치유되나 일부 환자들에선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대상포진후신경통이라고 부른다. 처음 대상포진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부터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차단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발생을 막지 않는다면 신경병증성통증으로 진행되어 머리의 대뇌신경계까지 변화를 일으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복합통증증후군

비정상적인 통증과 극도의 감각 과민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질환은 정확한 병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인으로는 외상이나 골절이 가장 흔하고, 뇌졸중 등에 의한 편마비 후에 마비된 팔에 잘 생기며, 신경 손상이나 수술 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흉터치료, 주름치료 프락셀 레이저 수술 흉터 최소, 미용수술 가능한 뽀뽀한 장비

수술을 받을 분들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이다. 또한 이 장비는 다른 레이저에 비해 특별히 부작용이 생길 일이 별로 없고 주름, 노화, 여드름 흉터 같은 미용수술도 가능하게 하니, 피부과 의사인 나에게는 효과 노릇을 하는 뽀뽀한 장비가 될 것이다.



**이현숙 전문의 | 피부과**  
• 전문분야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 진료시간 : 수(미용외과/흉터 클리닉), 목(종일), 금(오후)  
• 문의 : 피부과 ☎ 032-890-2230

오랜만에 어머니와 둘이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발라드 가수 모씨가 나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머 재는 피부가 어쩔 저렇게 좋아졌니? 여드름 흉이 엄청 많았는데 뭘 한 거니. 재는?”  
마침 HDTV 방송이라 얼굴의 미세한 트러블까지 가감 없이 다 보이는데, 정말 예전에는 분화구 같이 송송 파여 있던 여드름 흉이 말끔히 사라져 있다.  
“응. 아마 프락셀 레이저도 하고 박피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조 뭐.”  
“어. 지난번 동창회 나갔더니 내친구도 프락셀인지 뭔지 했다던데 그거냐? 개는 여드름은 없는데 주름이 싹 퍼졌다던데?”  
“네 맞아요. 흉터 치료하는 레이저인데 여드름 흉터, 주름, 수술흉터 이런 데 하는 레이저예요. 효과도 좋고 환자들 만족도도 좋고. 엄마도 해줄까?”  
“어머 애는. 됐어. 아플 거 아냐.”  
그러면서도 괜히 손거울을 찾아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가와 이마의 주름을 만지작거린다. 나의 어머니는 아픈 건 딱 질색. 암살이 심한 본인과 내 딸까지, 우리 3대는 말하자면 pain threshold (통증에 견디는 한계치) 가 매우 낮다.  
“예뻐지려면 좀 참아야지.”



## Fractional Laser a beautiful face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어머니를 설득하여 레이저를 받게 했다. 마취약을 바르고 충분히 마취를 한 후에 시술하고, 치료 즉시 냉찜질을 해드리니 통증에 민감한 어머니께서도 그리 아파하시지 않으신다. 그래도 얼굴에 붉은 기가 가시는 일주일 내내 말씀은 많다.

“어우 애, 내가 다 늙었는데, 나는 하기 싫었는데…… 딸래미가 나한테 시험해 보느라고…… 어찌구 저찌구.”

결국 동네 분들, 친구분들이 “그래 너는 좋겠다. 부럽다.”는 말을 들으시고야 잠잠해지신다.

Fractional laser는 최근 2-3년 사이에 각광받기 시작한 레이저이다. 프락셀 레이저란 ‘Fractional laser’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레이저 장비명이다. 본원에 도입된 루트로닉 사의 eCO2도 Fractional laser이고, 이에 해당하는 레이저 장비는 너무 많은데 편의상 모두 통틀어 프락셀 레이저라 칭하겠다.

프락셀 레이저는 미세하게 레이저를 조사, 피부 1㎝당 약 2000개의 작은 점 (미세열 치료점) 들을 만들어 피부 진피 깊숙이 에너지를 침투시켜 새살이 돋게 하는 원리이다. 수술흉터, 여드름 흉터 등에 사용하여 미세한 작은 구멍의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 다시 상처치유가 되게끔 하기 위한 장비이다. 또한 여드름 피부와 흉터, 노화로 인한 주름과 안색, 탄력까지 함께 개선해 줄 수 있어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물론 한 번의 시술로 새 얼굴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3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이 장비의 구입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특히 이 장비를 도입하려고 애쓴 이유는 흉터의 치료를 위해서이다. 어떤 이유로 발생했든 누구나 하나씩은 숨기고 싶은 흉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흉터가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다.

제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흉터재건수술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흉터에 다시 칼을 댄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쉽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장비를 이용해 수술 후 실밥을 뺀 직후에 시술해주면 나중에 흉터가 남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여러 논문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특히 갑상선 수술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이 시술을 권하고 싶다.

이 장비로 본원에서 수술을 한 또는 수술을 받을 분들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이다. 또한 이 장비는 다른 레이저에 비해 특별히 부작용이 생길 일이 별로 없고 주름, 노화, 여드름 흉터 같은 미용수술도 가능하게 하니, 피부과 의사인 나에게서는 효자 노릇을 하는 똘똘한 장비가 될 것이다.

참. 어머니를 시술해 드린 후 몇 주 뒤에 아버지도 시술해 드렸다. 아버지는 굵은 주름이 많아 보톡스 주사와 함께 시술해 드려야 했다. 아버지 또한 많이 만족해 하셨다. 안 해 드렸다면 큰 일 날 뻔 했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다.” 라는 말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검버섯, 주름, 잡티를 치료하기 위해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더 많다.

## 핀란드 라플란드의 심장 로바니에미를 아십니까?

산타클로스과 루돌프가 살고 있는 동화 속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인하대병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동생이 산타우체국에서 아시안 최초로 요정 (elfe)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큰딸이 먼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요번에는 작은 딸아이와 내가 동생네 집에 방문을 하는 기회를 3교대 근무로 힘든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6월19일부터 꿈같은 10박 11일의 여행일정으로 핀란드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백야를 경험하고 산타할아버지를 만나고 방목 되는 레인디어(우리가 알고있는 루돌프 사슴)를 도로에서 수시로 부딪히며 마치 어린 시절 꿈꿔왔던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먼 곳으로 시집가버린 동생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내 마음은 착륙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로바니에미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안도감으로 숲과 호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 The first story

## 환상의 여행, 기쁜 마음만 간직

너무나 먼 곳으로 시집가버린 동생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내 마음은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로 착륙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로바니에미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안도감으로 숲과 호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글 · 김영희 간호사 | 병동간호2팀 동8병동

작년 2월 핀에어(Finair)가 헬싱키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이 생기면서 약 9시간의 비행시간으로 정말 가까운 도시가 되었고 마침내 휴가기간에 가볼 수 있을 정도의 용비를 갖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가를 따로 보낼 수 있도록 코티지라는 개인 별장이 있어 약 30분 거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숲과 호수 곁에서 마음을 또 한번 정화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먼 나라라고 안타까워하고 항상 맘에 걸렸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렇듯 행복지수 1위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직접 보고오니 그런 내 마음은 모두 쓸데없는 생각이 되어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핀란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이드 시험에도 합격하고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산타우체국 요정으로도 실력을 발휘할 정도로 핀란드어에 능통한 동생은 할당하고 다재다능하여 본인말로는 핀에어 한국 유치도 본인이 성사한 거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과 위트가 넘치지만 항상 고국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우리집에도 없는 대형태극기를 걸어놓고 뜨문뜨문 찾아오는 한국사람들을 공항까지 나가 환영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다되었더라고요.

동생휴가와 맞춰 로바니에미를 경험하고 핀란드 최북단의 길벨스야루비(kilpisjarvi)에서 사우나 후 만년설이 녹아 드는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마치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에서 수영하는 기분!), 노르웨이 트롬소(Tromso), 나르빅(Narvik)을 거쳐 스웨덴 아비스코(Abisco) 국립공원에서 커피도 마시고 세계 철광석산업 1위의 스웨덴 키루나를 지나 파알라(Pajala)를 돌아오는 총 1500km의 여정은 정말 꿈 같은 환상의 여행이었고 무엇보다 언제나 함께하고픈 시집간 여동생과의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공항에서는 이제 또 헤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보다는 앞으로의 또 다른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는 서로의 기쁜 마음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별이어서 설렜구요~

올 겨울에는 모두들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었던 마음으로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우체국으로 우리나라 우표를 직접 풀로 부쳐(우체국 소인말고요~각 나라의 우표를 소중히 여긴다네요) 보내보세요. 산타할아버지가 일일이 답장을 써준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병동간호사로 더욱 성실히 근무하고 노력해서 내년 혹은 그 다음해에 더 긴 휴가를 받아 떠나보려구요. 동8병동 간호사들!! 나 없는 동안 병동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 산타우체국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Santa Claus Main Post Office / FI-96930 Arctic Circle / Lapland, Finland

- 1. 산타파크의 여름모습
- 2. 노르웨이 가다 선 곳(바다다)
- 3. 노르웨이 도시관망대에서 내려다 본 트롬소 모습
- 4. 맘씨좋은 핀란드 사람들.
- 5. 핀란드 길벨스야루비



# 목우와 산딸기 이야기

글 · 한아름 간호사 | 병동간호2팀 7병동

더운 일상에 시원한 단비가 내리 듯  
 친구가 되어준 산  
 묵묵하게 있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  
 씨익 ^\_\_\_^ 미소가 지어지는  
 뒤돌아보면 추억이 되는 시간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가방하나 메고 떠났던 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알게 된 따뜻함

매년 6월이면 강원도 영월 '목우산' 이 생각이 납니다.  
 산이 있어 어울렸던 사람들과 함께 산딸기를 함께 따며 마음  
 을 나눴던 그 곳. 무더워져가는 여름, 산을 사랑하게 만들어  
 줬던 그 곳. 따운 산딸기와 오디로 가을 겨울 함께 오래오래  
 함께 했던 사람들... 꽤 무더운 날씨에 꽤 땀 흐르는 땀 ;; 같이  
 흘려보는 즐거움, 흘린 땀이 아깝지 않도록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인심 좀 써서 산딸기 좀 드릴게요 ~ 에이 ~  
 기분 좋게 통째로 목우산 빌려드립니다.

목우산은 말이쥬 강원도 영월의 숨은 명산!  
 백두대간의 구룡산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에 솟은 산으로 보  
 는 방향과 산세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재미있어요. 녹전리 쪽  
 에서 보면 산세가 부드러워 소를 많이 방목하였다 하여 목우  
 산이라 칭하고, 산 남쪽 내리에서 올려다보는 암봉의 모습이  
 흡사 상여 같다고 하여 이 고장의 방언으로는 상여봉이라 부  
 르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라 근처에 특별한 먹거리  
 는 없지만 친구들 아니면 연인, 가족들과 맛있는 도시락을 들  
 고 먹어도 즐거움 만큼 아름다운 산입니다.

## The second story





## 휴식이 있는 그곳

글 · 조래정 약사 | 약제팀



## The third story

오늘은 놀토다. 우리 집에는 중학생 1명, 초등학교 1명이 있다. 우리 가족은 놀토에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비가 오면 쇼핑, 영화 또는 집에서 대충 보낸다. 가족끼리 부담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계절을 달리하여 같은 장소를 찾게 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즐겨 찾는 곳이 양평이다.

양평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우리가 즐겨 찾는 음식점 봉쥬르가 있다. 몇 채의 초가집사이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가 고택집을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큼직한 참나무 장작이 서로 기대어 진채 타고 있다. 창문이 넓은 방에서 군고구마로 허기를 달래고 있으면 맛있는 식사가 들어온다. 산채비빔밥, 수제비, 잔치국수 등, 메뉴는 단순하지만 그 맛은 예사롭지 않다. 창밖으로 달리는 기차를 보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젊은 날의 향수에 가슴이 아려움을 느끼게 된다.

봉쥬르를 나와 차로 5분을 달리면 다산 정약용 생각이 나타난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진실된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기 어렵다. 정약용은 사학(천주교)에 물든 죄인이라는 죄명으로 오랫동안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필생의 역작인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등 수많은 저술을 통해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몇 년 전에 강진에 갔다가 들렀던 만덕산, 백련사, 다산초당이 생각났다. 생가(여유당)를 둘러보고 생가 뒤편에 높지 않은 산의 계단을 올라가 보면 묘가 나온다. 조용하고, 구경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역사공부하기에도 좋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두물머리이다.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한자로는 양수리(兩水里)이다. 조안 I.C.에서 구양수대교를 건너 들어갈 수도 있고, 신양수대교를 건너 양수.C.에서 빠져나가 돌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사유지이지만,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 옛 영화가 엮힌 나무터, 강으로 늘어진 많은 수양버들 등 강가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웨딩·영화·광고·드라마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 사진동호인들의 최고 인기 촬영장이기도 한데, 특히 겨울 설경과 일몰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수령이 400년 이상이나 되었다. 사진 몇 장을 찍고 돌담이 멋진 강가를 걸으면서 보니, 멀리 운길산 산중턱에 수종사가 보인다. 누구나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차 맛과 삼정헌에서 볼 수 있는 풍경도 아름답다. 세조가 심었다는 500년 된 은행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고 내려왔다.

오는 길에 커피 집 '고당'에 들린다.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 낸 고급스럽고 진귀한 커피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단지 커피만 파는 곳인데 빈방이 없어서 마당에는 방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하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방이 하나 생긴다.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동티모르에서 왔다는 이름 모를 커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앉아 있노라니, 그 여유로움에 취해 마냥 머물고 싶어진다.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또한 늘 새로움을 주는 양평 여행은 내 삶에 하나의 활력소가 된다. 삶이 버거워질 때, 원가 길이 안 보이고 암담해 질 때,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양평으로 떠나 보라. 그곳에서 편안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풍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 이부자리 까르르~~ 싱가포르와 옆 동네를 다녀와서

글 · 윤재구 | 공항의료센터 응급구조사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크고 제주도의 1/3크기인 약 699 평방미터이다. 전체인구는 490만 명이며 중국계 77%, 말레이시아계 14%, 인도계 7%, 소수 2%이며 한국인도 1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현재는 건기지만 하루에도 1~3번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여행을 하면서도 날씨가 변덕스러웠다.

싱가포르는 정치, 거리, 물이 깨끗하다고 한다. 정치는 최하 공무원도 월화 약 290만원은 받고 만약에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최소 15년 징역과 그 기속도 같이 빨간 줄이 간단하다. 또한 마약을 소지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

한다. 담배꽂초를 버리면 미화 500달러, 사복경찰이 20%를 차지하여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사복경찰로 생각하면 될 정도이다. 껌을 씹는 행위는 92년에 금지되었다. 물이 부족한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서 정화해서 다시 되팔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여성에게 천국이다. 물가가 비싸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하는 게 더 저렴해서 외식이 발달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3~4달러면 야외식사가 가능하다. 학생들도 급식이 아니라 식당에서 사서 먹는다고 한다. 우리 여성가이드는 3달에 한 번쯤 집에서 식사를 한다 하여 싱가포르의 조금 다른 음식문화를 알 수 있었다.



**첫째 날.** 6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저녁 9시가 돼서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아마라호텔에 투숙하였다. 인천공항에서 목레탄 나눈 일행은 호텔에 짐을 풀고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병원에서의 각자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병원을 떠나서도 병원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늦은 첫날밤을 보냈다.

**둘째 날.** 아침부터 30도에 육박하는 온도와 습도에 버스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동하여 회교 사원과 원주민 마을을 견학하고 싱가포르로 돌아와 쥬롱새공원과 식물원 관광을 하였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리만 건너면 되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가이드는 서울에서 잠깐 인천 갔다왔다 생각하면 된다는 농담을 했는데 정말 출입국심사만 거칠 뿐 바로 옆 동네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통학하는 스쿨버스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 둘째 날 관광일정을 마치고 모두들 호텔을 나와 싱가포르의 야시장으로 향하는 이층버스에 올랐다. 노점에서 현지인들은 식사를 하고 야시장의 생과일쥬스, 옷, 기념품가게 등 우리 내 동대문시장을 연상케 했다. 한가지 우스웠던 건 PUMA상표의 티셔츠 일명 “짜퉁” COMA 티셔츠에 퓨마가 봉대를 둘둘말고 거꾸로 뒤집혀 있어 같이 간 일행과 한참을 웃었다. 그런데 그 티셔츠가 싱가포르 달러 10달러나 한단다. 참고로 15달러면 원피스 한 벌이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쾌속선을 타고 1시간여를 지나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원주민 마을과 불교사원을 보고, 그 동안의 피로를 푸는 전신마사지를 받고 숙소인 하리스(하리수

아님) 호텔에 도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60년대 모습과 비슷했고 원주민 마을에선 아이들이 “오빠 천원” 하며 비닐봉지에 바나나를 팔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럿이 바나나를 사서 차 안에서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 왠지 예전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싱가포르가 여성의 천국이라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남성의 천국이다. 이곳에서는 일부다처제로 능력만 있으면 3명까지 부인을 맞을 수 있다. 4명부터는 불법이란다. 우스개 소리로 총각과 기혼자는 머리 술이 있는지 없는 지로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유가 3명의 아내가 서로 이리오라고 남편의 머리꼬딩이를 잡아당겨서라 한다 (ㅎㅎ).

**넷째 날.** 햇살이 비치는 호텔전경을 보며 하루를 더 쉬어가고 싶은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바탐섬의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차이나타운에서 중식을 하고 센토사 관광, 저녁엔 리버보트를 타고 눈부신 성장을 한 싱가포르의 화려로운 야경을 보고는 창이공항으로 향해 저녁 11시쯤 인천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여행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이부자리 까르르~”다. 인도네시아말로 “이부자리 까르르~~~” good, excellent 최고라는 뜻으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네들의 말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부라지 까르르” 라 한다. 흑심 품지 마시라~ ㅋㅋㅋ

모든 일을 접어두고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 병원관계자 분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더불어 늘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최고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바빠 뛰는 숨은 인재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사진 왼쪽 좌측에서 세번째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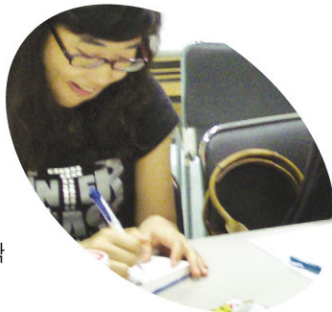
## 수술실 간호사 워크숍

# “우리 모두 함께 해봐요?? ㄹ~~~”

현재 우리병원은 해외 우수 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JCI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수술실은 여러 방향의 개선활동의 하나로 수술실 간호사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글 · 이현주 간호사 | 특수간호팀

‘JCI’를 주제로 개최된 수술실 간호사 워크숍에서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수술실의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3층 제 1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수술실 간호사들을 4개의 조로 나누고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 조별 토의를 하였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수술실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의실 안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각 조는 수술실의 구조 및 간호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Senior, Junior와 신규 간호사들로 구성된 후, 각 조의 토의 주제로 6월 초 이루어졌던 JCI Baseline Consultant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을 CPDS(Case Package Delivery System), 환경(Patient of Control Infection, 청소 등), 멸균(소독기, 수술기구 관리 시스템 등), 안전(위험물질 관리, 화재, 화상, 낙상 등)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병원 수술실에 적용방안을 수립하는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조별 주제에 따라 토의한 개선방안은 ●1조 CPDS-효율적인 물품시스템 구축 ●2조 환경-수술실 감염관리를 위한 청소지침 마련 및 추후 monitoring 실시 계획 ●3조 멸균-오염·청결 지역의 공간 확보 및 구획화, 수술기구 관리시스템에 따른 기구set 통합 운영 방안 마련 ●4조 안전-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구조적 환경 조성, 화재예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 계획 등입니다.

조별 토의 이후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제시된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JCI와 관련된 시설, 환경,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공유 하며 또한 공유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도약을 위해서 각 조별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결의하는 의미 있고 가슴 뻐뻐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JCI Baseline Consultant 수검 받으면서 수술실 간호사 모두가 수술실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친 진행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열기 속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의 방안들이 개선되길 희망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병원의 'JCI'인증 추진을 계기로 시작된 수술실의 변화는 처음에는 JCI인증 통과가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도전과 열정' 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협력하고 결속하는 분위기가 자랑인 우리 수술실이 팀워크 발휘하여 더욱 발전된 수술실 환경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합니다. "핫 팀!!! 인하대병원"

# 의사의 눈빛만 봐도 마음에 안정이.....

존경하는 인하대병원 원장님! 안녕하세유.

저는 2년 전 십이지장 종양으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강환경찰서 청문감사관 서정영 입니다. 아까 저에게 인하대 병원이 없었다면 강릉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행복마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인하대 병원에 대한 무한한 감사한 낯다른 감회에 젖어 봅니다.

오늘 인터넷 게시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저의 진료를 맡은 김형길 교수님으로부터 내 생에 있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한달 전 제가 몹 상태가 좋지 않아 인하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혹시 종양이 재발되지 않았나 하는 매우 걱정스런 심정으로 마음 조이며 치료를 받던 중 너무나 부드러운 손길로 복안에 뒹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겨 용기를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타 병원 의사의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사용하면 어떠냐고 문의 하였을 때도 조금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헌을 참고 살아 연구 검토한 후 환자인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치료를 권장하는 것을 보고 그간 저스러운 마음의 짐을 벗어 버린 것 같아 한결 편안해지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가슴 뭉클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뿐 만 아니라 병이 하루빨리 완치되기 위해서는 환자는 의지가 강해야 하며, 의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보호자는 성심 성의껏 간호를 해야 된다는 3위 일체를 강조하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자의 마음을 보듬어주어 저와 함께 입원실을 사용한 여러 환자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김형길 교수님은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훌륭히 여기고 내 몸같이 어루만져 주어 환자가 의사의 눈빛만 보고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는 소설 동의보감에서 기술했던 여덟 가지 의원 중 제일로 치는 심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김형길 교수님이 있는 한 인하대 병원은 인천시민의 사랑을 한 몫에 받은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 또한 인하대 병원의 홍보맨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원장님을 비롯하여 인하대병원 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7. 강환경찰서 서정영 드림





신장질환에 대한 궁금증

## 칼륨이 적은 단감, 포도, 사과 섭취해야

**Q : 신장이 안좋을 때 칼륨수치를 낮춰야하는데 주의해야할 음식이 있나요?**

**A :** 칼륨은 신경과 근육의 작용을 돕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배설하는 기능도 함께 떨어져 근육쇠약과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호박 등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만성신부전 환자는 가급적 칼륨이 적은 단감, 포도, 사과로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내 칼륨이 과다할 경우에 먹는 약으로 본원에 카리메트(Kalimate)가 있습니다.

**Q : 포스레놀이라는 씹어먹는 약을 받았는데 어떤약인가요?**

**A :** 포스레놀(Fosrenol)은 신부전 환자에서 인수치를 낮춰주는 약으로 물 없이 씹어서 복용하는 제형으로 나와 신장질환 환자에게 수분섭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수치를 낮춰주는 약으로 본원에 포스바인(Phosbina), 레나겔(Renagel)이 있습니다.

인은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슘과 짝을 이뤄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신장기능이 안 좋을 때는 이 균형이 깨져 인을 많이 섭취할수록 피부가려움, 관절통,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환자는 잡곡밥, 곰국, 설렁탕 등 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Q : 신부전 환자인데 계속 빈혈에 시달립니다. 철분제를 먹으면 될까요?**

**A :** 신부전환자는 빈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빈혈에 좋다고 임의로 철분제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생기는 빈혈은 철분의 부족 보다는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조혈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조혈주사 (본원: 에포카인(Epokine), 아로포틴(Aropotin), 아라네스프(Aranesp))를 처방 받아 맞아야하며, 철분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Q : 신부전일 때 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가요?**

**A :**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내의 땀샘이나 지방샘 등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중 요독소가 피부에 침착하여 피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복용, 자외선 조사, 피부 연고, 부갑상선 절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목욕 후 보습크림, 유아용 오일 등을 전신에 바르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Reference

1. www.druginfo.co.kr/ 2. United States Renal Data System 미국 신장질환 정보공유 단체
3. www.ksn.or.kr/index\_kr.html 대한신장학회 4. www.kidneyclub.net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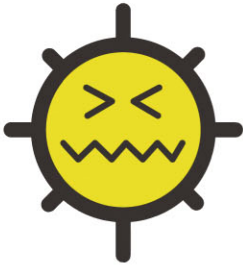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즐기기는 쉽지않아

## 정말...운동을... 해야 할까요? :-

생각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운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그냥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깐 따라 하다가, 싫증나면 중단하고 바꾸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운동은 점점 재미없고 힘든 것으로만 각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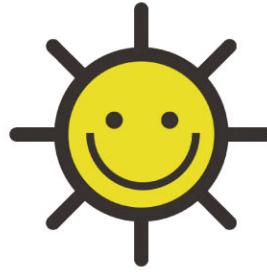
글 · 최석인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 [운동처방사의 상담사례]



**A** “어떤 운동이 제게 좋을까요?”  
 “그럼 어떤 운동 하실 때가 재미있으세요?”  
 “운동이 힘든데 즐거울 리가 있나요? 그냥 해야 하니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본인이 싫어하는 운동이라도 가장 좋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우선 무조건 해보고요, 힘들면 안하면 되죠” :-

**B** “제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아마 제가 선생님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 봤을 걸요. 학생 때까지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목표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선수로서의 기록을 위해 운동하셨다면 지금은 또 다른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교육 후 ▶▶**  
 “이건 너무 쉬워요. 과거에 제가 하던 거에 반도 안 되는데 운동이 되겠어요? :-”



**A** “이 무릎만 아니라면 날라 다닐 수도 있겠는데... 하다못해 물속에서 운동을 해도 힘이 들어서 5분 이상을 못 해요”  
 “그렇다면 재활 운동을 해 보셨어요? 혹시 가장 쉬운 밴드를 이용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재활은 무슨, 수술한 것도 아닌데 좀 아프다고 재활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해 보고 오세요, 딱 가르쳐 드린 만큼만요”

#### 2주 후 ▶▶

“며칠 여행 다녀오는 길에도 밴드 가지고 가서 운동 했어요.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통증이 줄어드니까 더 힘도 생기는 거 같고 좋아요”

**B** “저는 서 있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앉아서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앉아서 운동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번만 해 보세요”

#### 교육 후 ▶▶

“와! 이런 게 운동이 되는 줄 몰랐어요.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Frequency Intensity, Type & Time

운동처방은 목적에 따라 F(frequency빈도)I(intensity강도)T(type종류)T(time시간)로 나뉘서 이루어진다. 물론 개인의 특성(과거병력, 심혈관계 능력, 근골격계 통증 유무)에 따라 추천운동과 금지운동으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검사와 상담을 통해 운동처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리 좋다는 운동도 목적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기에 E(enjoyment개인의 기호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효과적인 운동의 순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하기 싫은 1위보다도 적어도 싫지 않거나 좋아하는 하위의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운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그냥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하다가, 싫증나면 중단하고 바꾸고를 반복하는 사이에 운동은 점점 재미없고 힘든 것으로만 각인되는 것이다.

운동이 좋다는 건 남녀노소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운동을 즐기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엔 많은 방해요소가 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너무 지쳐서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운동을 하게 될까?

### 좋은 목표와 실행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의식과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동기 부여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던가.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에게 폐 끼치게 될까 걱정 되는 마음에,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운동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들은 예쁜 옷을 편하게 입고 싶어서 등의 이유도 얼마든지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행방법은 더 다양할 수 있다. 전문가와의 측정과 상담 후, 본인의 능력, 기호도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운동을 길게 할 수 없는 상

황이라면, 인터벌 트레이닝방법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의 고강도운동과 휴식시간을 반복하며 틈 날 때마다 운동하면 되는 것이다. 기구를 사용할 여건이 안 된다면 가벼운 덤벨과 모래주머니, 그리고 우리의 몸(우리의 다리와 상체무게는 스포츠센터의 기계보다 어쩌면 훨씬 무거울 수도 있을 테니까^^)이 가장 좋은 운동기구로 변신할 것이다.

### 운동부족보다 더 무서운 운동중독

운동부족과 반대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운동중독에 대해 얘기해 보자.

과도한 운동이 건강을 해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만 운동한다면 과연 건강한 운동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정상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운동하지 않은 만큼 살이 찢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말 운동의 효과를 모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늘 말한다. 근육이란 녀석과 친해져야 하는데. 이 친구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지만, 한번 마음을 얻은 다음엔 쉽게 떠나지 않는 믿음만한 녀석이라고. 그래서 든든함을 느껴도 된다고. 아프기 전에. 다치기 전에. 건강할 때 운동을 하는 건 복리이자로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을 통해 체중감량을 했을 때는 큰 이슈가 된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감정의 동물인 우리들이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운동의 효과를 믿고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어쩔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자에게 운동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육체적, 정신적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맘껏 즐기세요!!!" \*^^\*

LIG for  
*Tomorrow*

50  
고객과 함께한 50년  
희망의 약속 100년

LIG손해보험 50년,  
고객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100년도, 고객의 든든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희망에 투자합니다 **LIG 손해보험**

www.LIG.co.kr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 고객센터: 1544-0114

신속한 사고처리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LIG  
**이적카**

상해, 질병 등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무배당  
**LIG 웰빙보험**





## 췌장암 하이프 시술 시연회 개최



췌장암 시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황주하 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를 초빙하여 지난 7월 6일(월) 오전 9시에 본원 하이프센터에서 췌장암 하이프 시술 시연회를 갖고 상호 의료기술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번 시술한 송 ○○(여, 76세) 환자는 췌장암 말기 환자이고 수술은 불가능한 환자로서 항암치료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시술로 통증 완화는 물론 종양 크기를 축소시켜주며, 6개월 정도의 여명을 약 3배 정도 연장시켜주는 등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술은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황주하(40세) 교수는 미국에서도 명성이 높은 워싱턴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내시경 초음파센터에서 근무 중인 권위 있는 의사로서 HIFU연구의 권위자이며, 초음파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이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건강협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로부터 국제연구 서비스상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제 초음파 치료의 심포지엄에서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8위(남자)와 9위(여자)안에 들 정도로 매우 발생률이 높으며, 사망률은 더욱 높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다. 금번 췌장암 하이프 시술 시연회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최신 암 치료장비인 하이프(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는 장비를 이용한 치료이다.

본원은 2008년 3월 아시아 최초로 4차원 무혈, 무통 방사선 암치료기 '로봇 사이버나이프'를 가동한 데 이어, 7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제3세대 초음파 암치료기 하이프까지 도입하여 가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암 치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프 장비는 암이 발생한 조직 및 환자 면역력 상태에 따라 섭씨 55-70도의 고강도 집중 초음파 에너지를 종양 부위에 쏘아 조직을 응고, 괴사, 액화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하이프는 칼이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암 치료법에 비해 시술 중이나 시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이 매우 적다. 그리고 임신부에게 시술할 수 있을 만큼 인체 무해함이 큰 장점이다.

특히 하이프는 상당수의 말기 암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없애 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며 마약성 약품의 복용을 줄여 환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 적용범위는 매우 다양해 현재 췌장암, 간암, 자궁근종은 허기된 부분이다. 또 뼈 종양, 신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 완화 등으로까지 적용증을 넓혀갈 예정이다.



### 유타-인하 DDS 연구소 설립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인천 송도 지역이 '약물전달시스템(DDS) 상용화' 를 위한 아시아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재단법인 유타-인하 약물전달시스템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U&I DDS 연구소, 공동소장 배유한·이돈행)는 6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연구소 개소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DDS란 약물을 병변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전달하여 약효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시스템이다. 현재 대부분 약물의 경우 복용하면 인체 전체에 퍼지면서 효능을 발휘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기약에서부터 항암제까지 모든 약물의 복용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항암제 치료를 받았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약물 부작용도 사라질 수 있다.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U&I DDS 연구소'에 매년 20억 원씩 5년 간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중국 현지서 인기 - 개원 100일 만에 초진 외래환자 1천명 넘어서 ●●

중국 청도에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를 개설했던 지 100여 일 만인 7월 13일에 초진 환자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20일 중국 청도 청양구 인민병원에 문을 연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는 가정의학과 교수가 상주진료하며, 소화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중국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인하대병원 전문 교수진 24명이 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고 있다. 또 인민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 인하대병원 본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있다. 향후 국제진료센터에 진료과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베트남 · 러시아 병원관계자 및 일본 팸투어단 방문 ●●●

6월 23일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8개 병원의 병원장과 부원장들이 인하대병원을 방문하였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시장에 뛰어들어 이후 해외 병원장들이 단체로 방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본원 등 국내 8개 병원을 방문해 최신 의료장비를 둘러보고 의료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러시아 의료인들은 25일 방문하여 그 중 일부는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돌아갔으며, 7월 9일에는 일본여행사 직원들로 구성된 팸투어단의 방문도 있었다.



### 인천지역 10개 병원과 진료협약체결 ●●●●

7월 7일 인천지역 10개 병원과 '협력병원 진료 협약' 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은 기존 60여 곳을 포함해 70여 곳으로 늘어 인천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박승림 병원장은 "인하대병원과 협력병원은 '믿음과 신뢰' 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은 물론 지향하는 정신까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력병원 협약체결을 계기로 서로 진료인력과 각종 학술 행사 연수교육,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하이프, 유방감마스캔 등 최신의료장비와 전문진료 영역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제2기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입과자 -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 ●

제1기에 이어 제2기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입과자,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을 가졌다. 6월 10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과자 평생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 시 전담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받게 된다.



**찾아가는 건강공개강좌 및 정기 건강공개강좌 실시** ●●

6월16일 인천 중구 연안초등학교를 찾아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소아청소년과 손병관 교수가 '아토피 및 천식 예방 관리 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감염내과 정문현 교수, 제1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7월 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실시된 2009 제19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우수논문상 시상식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과학기술자의 논문 중 소속 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한 우수논문(학회 당 1편)을 심사, 감염내과 정문현 교수는 '국내 환자에서 분리된 Orientia tsutsugamushi에서 doxycycline 내성'이라는 논문으로 학술지인 '감염과 화학요법'에 논문을 게재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비인후과 김영모 교수,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09' 선정** ●●●●

이비인후과 김영모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 발행기관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The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의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09'에 선정되어 2009년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영국 국제인명센터의 인명사전은 전세계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의 인적사항과 이력을 기록한 세계인명사전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중의 하나로 엄격한 선정 기준과 방대한 인명 자료,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쳐 확립된 권위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김교수는 두경부종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간행위원, 대한기관식도학회 학술이사, 대한 두경부외과 연구회 기획이사, 학술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인하대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활동중이다.



**박혜옥 인사교육팀장, 보건복지가족부 유공자 표창 수상** ●●●●●

6월 19일(금)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009 의료기관평가자교육'에서 유공자 시상식이 있었다. 본원 박혜옥 인사교육팀장은 그간의 의료기관평가활동에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료기관평가위원 유공자표창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상했다.



**전교직원 대상, 변화·혁신 과정 교육실시** ●●●●●●●

7월 15일 1차수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2009 변화 혁신



(I KNOW SCHOOL)과정'을 실시한다. 안양 블루몬테 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총 18차수로 진행된다.

### 대한항공 '직딩슈주' 환자 위로 공연 ●

지난 6월 20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스타 대한항공의 '직딩슈주' 가 병원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가졌다. 1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이 행사는 마술쇼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많은 환자들은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대한항공 직원들은 공연 이후 어린이 환우 들을 대상으로 모형 항공기 봉제 인형을 나눠주기도 했다. 본원과 대한항공은 향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하대병원 인천공항의료센터가 태국 대사관의 감사장 받아 ●●

인하대병원의 인천공항의료센터(센터장 박원 진료부원장)는 7월 6일 인천공항에서 생명이 위독한 태국여성을 응급 치료해 무사히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공로를 인정받아 주한 태국대사관(참사관 나르몬 폰삿)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인천공항의료센터가 응급상황으로 쓰러진 태국인 여성을 치료해 자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준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주한 태국대사관에 알려져 지난달 의료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해 왔다.



### 자원봉사자 CS 교육 실시 ●●●

인하대병원에서는 6월 22일~24일 3일간 '인하대병원의 중심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 CS교육을 실시하였다. 진료지원팀과 CS팀 주관으로 사내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이미지 메이킹, 고객응대방법, JCI인증과 봉사자, 병원감염관리 및 전염병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파랑새 소식

###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계양산 등산

6월 11일에 50여명의 환우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등반을 하였다. 지역마다 소그룹의 등반 모임이 있는 등 등산은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많은 환우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http://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 ♣광릉수목원 야유회

7월 15일에는 광릉수목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다행히 장마 중에 날씨가 좋아서 맑은공기에 숲속에 솔향기와 맛난 점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과 배우 김명수 씨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던 색다른 추억들이 되었다.



\* 다음행사 : 9월 불평모임 축제

\* 신청자는 각 지역 팀장 및 여성암센터로 문의

# 인사동정

## 보직임명

| 소속     | 성명  | 발령사항   |
|--------|-----|--------|
| 병동간호1팀 | 김미옥 | 임상시험센터 |
| 병동간호2팀 | 송시은 | 특수간호팀  |
| 병동간호2팀 | 이계화 | 병동간호1팀 |
| 특수간호팀  | 최현미 | 병동간호2팀 |
| 외래간호팀  | 원지현 | 병동간호2팀 |

## 신규임용

|      |     |      |
|------|-----|------|
| 성형외과 | 김소영 | 임상강사 |
|------|-----|------|

## 채용

### ●신규

|     |     |
|-----|-----|
| 약제팀 | 최다지 |
|-----|-----|

### ●인턴사원

|         |     |
|---------|-----|
| 대외협력홍보실 | 박경환 |
|---------|-----|

원무보험팀 이재호

인사교육팀 황준원

재무팀 신소라

CS팀 이혜수

총무팀 이희수

### ●수습

병동간호1팀 이현정, 정혜란, 이영룡

병동간호2팀 오유경, 정지영, 김소영

특수간호팀 윤광진, 배선정

외래간호팀 이창민

### 이달의 친절직원

6월 병동간호2팀 (서9병동) 한선영

7월 병동간호1팀 (서16병동) 이은정

##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1. 자격

-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봉사당일 무료주차
-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의료비 감면 (6개월 이상 봉사자)
-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 활동부서                      | 대 상       | 활동내용   |
|---------------------------|-----------|--|
| 소아청소년과                    | 입원, 외래환아  |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
| 외래안내                      | 내원객       |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
| 도서대여                      | 입원환자, 보호자 |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
| 이미용 봉사                    | 입원환자      | 이미용(병동방문)                                    |
| 호스피스                      | 입원환자      | 세발, 간병, 목욕, 말벗                               |
| 진료지원부서<br>(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           |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br>환자기운 등 세탁물 정리 |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 아름다운 희망

슬픔이란 뭔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뒤로 한 발 물러나 거기에 고요가 생겨나며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큰 아픔을 한번 겪고 난 후, 이제는 나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슬픔이라는 손님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누구나처럼 나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슬픔은 이렇게 겹쳐서 오나보다. 설상가상이다. 아프고 불안해하는 딸아이 앞에서는 맘 놓고 울지도 못했다.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찌그러 앉아 울고 또 울고 원망도하고 한 숨도 쉬고...

2009년 1월 설연휴를 보내는 동안 딸아이는 다리가 아프다고 밤새 끄공 앓았다. 열도 나고 기운도 없었다. 워낙 자리면서 신생아 때 황달로 3일 정도 입원한 이래 잔병치레는 별로 없었다. 단순히 감기라 생각하고 연휴를 끝내고 병원에 와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위해 채혈과 채뇨만을 하고 귀가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응급으로 입원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입원을 했다. 골수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았다. 예쁘고 똑똑하고 아무진 우리 딸아이의 병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란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치료가 딸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주렁주렁 달리는 항암치료제, 한 번에 열 알도 넘는 알약을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계속되는 척추주사... 하지만 이런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격려해준 831호 항암치료 병실 보호자들과 우리 딸아이보다 먼저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해져가는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김순기 교수님께서서는 모든 치료과정을 알 수 있게 딸아이의 항암치료과정에 대한 스케줄을 복사해주시고 책도 소개시켜주시면서 백혈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는 희망을 주셨다. 강희숙 선생님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꼬박 얼굴을 보고 딸아이의 치료 뿐만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보호자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병실에서는 이렇듯 여러분들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치료비는 또 다른 걱정이었다.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사회복지과 원공주님은 사막에서 애타게 오아시스를 찾던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다. 암이라는 병이 발달된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완치 가능한 병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다. 딸아이는 항암치료 중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암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입약을 투여해야만 했다. 한 번 맞을 수 있는 한 병 정도의 가격이 200여만 원이었다. 그 항암제만 1000여만 원이 든다. 이런 상황은 우리집의 형편상 절망이었다. 이때 원공주님은 홀몸도 아닌 상태에서 눈물만 나오는 우리 가정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듣고는 여기저기 여러 지원 단체에 직접 전화하면서 애쓰셨다. 원공주님의 노고로 새생명 지원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40여 년간 이렇듯 여러 사람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본 기억이 없었다. 청천벽력 같은 암선고를 받고 절망만 있을 것 같았던 암흑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만하게 살던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 주변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기도한다.



♣ 사회복지 지원금으로 본원에서 백혈병 투병중인 환아의 어머니 글입니다.

● 의료비 지원 및 후원 관련 문의 :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의료사회복지사 ☎ 032-890-2870



# Global Inha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낯 설은 “Hello”라는 말이 들리신다면, 어떻게 응대하고 계십니까? 당황해서 수화기를 끊어버리지는 않는지요? 이번 호에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외국인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Staff:** This is Inha University Hospital (This is Inha University Hospital telephone exchange services), may I help you?  
인하대병원입니다. (인하대병원 교환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nt' l patient:** Can I speak with Dr. Do-Hwan Sung in Urology?

비뇨기과의 성도환 교수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Staff:** Can I ask what this is regarding?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원하시나요?

**Int' l patient:** I woul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Sung.

성도환교수님께 진료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Staff:** I'm sorry. We provide the appointment service for foreigners at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I will

connect you to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for your appointment.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nurse will help you for making an appointment following your condition. 죄송합니다만, 외국인 진료예약은 국제진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진료센터로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진료센터 간호사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예약을 도와드릴 겁니다.

**Int' l patient:** O.K. Thank you.  
좋아요, 감사합니다.

**Staff:** I'll connect you, now. Have a good day.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앞으로 외국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위의 대화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원 | 고 | 모 | 집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진찬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부협력팀

## 독 자 업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받 는 사 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퀴즈 퀴즈 제49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소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소변은 농도, 산도 및 화학물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소변이 색깔을 띠는 것은 헤모글로빈 때문이다.
- ③ 연소변에 거품이 아주 많이 생길 때는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다.
- ④ 요로가 감염되면 소변이 탁하게 보일 수 있다.

## 2

노인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노인성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청력감소이다.
- ②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청신경 조직은 재생이 힘들므로 청력을 다시 정상상태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 ③ 중증도 이상의 난청을 방지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고립감과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 ④ 노인청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 3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3차원 초음파 암치료장비 **○○○**은/는 암이 발생된 조직 및 환자 면역력 상태에 따라 섭씨 55~70도의 고강도 집중 초음파 에너지를 종양 부위에 쏘아 조직을 응고, 괴사, 액화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칼이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암 치료법에 비해 시술 중이나 시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이 매우 적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시술할 수 있을 만큼 인체 무해함이 큰 장점이다. 지난 7월 6일에는 **○**대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황주하 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를 초빙하여 **○**대학 시술 시연회를 갖기도 하였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uiz 정답

1

2

3

### ♣ 제48회 QUIZ 정답

- ① 4
- ② 3
- ③ 유방감마스캔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이수미 서울 광진구 중곡4동
- 황호민 충남 아산시 풍기동
- 박선옥 인천 부평구 삼산동
- 황윤상 시설팀
- 김옥경 서 11병동



##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9년 7월 15일 현재

| 기부자  | 약정액          | 납입총액         | 비고 |
|------|--------------|--------------|----|
| 250명 | 558,800,348원 | 455,985,498원 |    |

## | 건강교실 안내 |

| 건강교실명               | 내 용  | 개최일시                                   | 개최장소         | 문의전화          |
|---------------------|--|--|--------------|---------------|
| 출산준비 부부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 매주 (토) 오후 2시                           | 3층 회의실       | (032)890-2170 |
|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 매주 1회<br>(교육 신청시 안내)                   | 3층 암센터       | (032)890-2580 |
| 유방암 환자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li> <li>•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 8월 13일(목) 오후3시~5시<br>9월 10일(목) 오후2시~4시 | 3층<br>1 세미나실 | (032)890-2560 |

## | 무료공개 강좌 |

| 강좌 일자           | 강좌 내용     | 진료과목  | 담당교수 |
|-----------------|-----------|-------|------|
| 7월 28일(화) 오후 3시 | 폐암 치료의 발전 | 호흡기내과 | 류정선  |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 갤러리 전시안내 |

| 전시 일정                           | 제목                 | 참여 작가     | 주최          |
|---------------------------------|--------------------|-----------|-------------|
| 2009. 7. 1(금) ~ 2009. 8. 1(토)   | 환우돕기전 '맑은 듯 다른 자연' | 김기백       | ANGEL SEVEN |
| 2009. 8. 2(금) ~ 2009. 8. 29(토)  | 환우돕기 사진전           | 김몽영 / 김기범 |             |
| 2009. 8. 29(토) ~ 2009. 9. 26(토) | 환우돕기전              | 김기범       | 5인의 독수리     |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 진료과                          | 교수명  | 선택진료 | 세부전공과목                | 진료요일                     |                       | 비고                  | 진료과                 | 교수명  | 선택진료               | 세부전공과목                       | 진료요일       |                 | 비고                           |               |               |  |
|------------------------------|------|------|-----------------------|--------------------------|-----------------------|---------------------|---------------------|------|--------------------|------------------------------|------------|-----------------|------------------------------|---------------|---------------|--|
|                              |      |      |                       | 오전                       | 오후                    |                     |                     |      |                    |                              | 오전         | 오후              |                              |               |               |  |
| 심장내과<br>(☎2200)              | 이우형  | *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 월, 금                     | 화                     | 심장혈관센터<br>(☎2440~1) | 복막투석클리닉<br>(☎2535)  | 김문재  | *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 수          |                 |                              |               |               |  |
|                              | 박금수  | *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상질환      | 월, 목                     | 화                     |                     |                     | 이승우  | *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            | 목               |                              |               |               |  |
|                              | 권 준  | *    | 관동맥질환, 심장관막질환, 심근증    | 수                        | 월, 목                  |                     |                     | 송준호  | *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            | 화               |                              |               |               |  |
|                              | 김대혁  |      | 해외연수(2008. 8 ~ )      |                          |                       |                     |                     | 권수현  |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 목          | 월               |                              |               |               |  |
|                              | 우성일  | *    | 관동맥질환, 심혈관재술, 고혈압     | 화                        | 월, 수, 금               |                     |                     |      |                    |                              |            |                 |                              |               |               |  |
|                              | 신상희  | *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 월, 화, 금                  | 목                     |                     |                     |      |                    |                              |            |                 |                              |               |               |  |
| 소화기내과<br>(☎2224)             | 최응길  | *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 금                        |                       |                     | 헬릭스종양내과<br>(☎2219)  | 김철수  | *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 월, 수       | 월, 수            | ■폐암센터<br><br>친자확인            |               |               |  |
|                              | 임 반  | *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 수, 목                     | 수                     | 이문희                 |                     | *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 수, 목                         | 월          |                 |                              |               |               |  |
|                              | 김영수  | *    | 연수                    |                          |                       | 이현규                 |                     | *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 (월), 화, 금                    | 수 (목)      |                 |                              |               |               |  |
|                              | 신용운  | *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 월, 금                     | 수                     | 임주한                 |                     | *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 월                            | 화, 목, 금    |                 |                              |               |               |  |
|                              | 이돈형  | *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 화, 목                     | 월                     |                     |                     |      |                    |                              |            |                 |                              |               |               |  |
|                              | 김형길  | *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 수, 금                     | 월                     |                     |                     |      |                    |                              |            |                 |                              |               |               |  |
|                              | 권계숙  | *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 수, 목                     | 화                     |                     |                     |      |                    |                              |            |                 |                              |               |               |  |
|                              | 이진우  | *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 화, 목, 금                  | 목                     |                     |                     |      |                    |                              |            |                 |                              |               |               |  |
|                              | 정 석  | *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 월, 화                     | 금                     |                     |                     |      |                    |                              |            |                 |                              |               |               |  |
|                              | 이정일  | *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 월, 수                     | 수, 금                  |                     |                     |      |                    |                              |            |                 |                              |               |               |  |
| 호흡기내과<br>(☎2219)             | 김철현  | *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                          | 화                     |                     | 류마티즘센터<br>(☎2210~1) | 박 원  | *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 화, 수, 목    | 월               |                              |               |               |  |
|                              | 박병욱  | *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                          | 목                     | 권성렬                 |                     | *    | 관절염, 활관염, 베체트, 레이노 | 월, 금                         | 화, 수, 목    |                 |                              |               |               |  |
|                              | 일 반  |      |                       |                          |                       | 임미진                 |                     | *    | 관절염, 척추염, 통풍       |                              |            |                 |                              |               |               |  |
|                              | 이홍렬  | *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 화, 목 (금), 월, 화 (수), 금, 수 | 월, 금                  | 최정란                 |                     | *    | 관절염, 척추염, 통풍       | 화, 수, 목                      | 월, 금       |                 |                              |               |               |  |
|                              | 곽승민  | *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 월, 화 (수), 목, 금, 수        | 수                     | 일 반                 |                     |      |                    | 금                            |            |                 |                              |               |               |  |
| 폐암 센터<br>(☎3890)             | 류정선  | *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 화, 목 (월), 목, 금           | 화, 목 (월)              |                     | 알레르기내과              | 김철우  |                    | 해외연수(2008. 9 ~ )             |            |                 |                              |               |               |  |
|                              | 조재화  | *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예약  | 수, 목                     | 월, 화 (수), 화 (목), 수, 금 |                     |                     |      |                    |                              |            |                 |                              |               |               |  |
|                              | 남해성  | *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                          | (화), 수, 금             |                     |                     |      |                    |                              |            |                 |                              |               |               |  |
|                              | 내과   | 이홍렬  |                       | 폐종양                      | 금                     |                     |                     |      | 내과계열반              | 일 반                          |            | 전체적인 내과진료       |                              | 월, 화, 수, 목, 금 | 월, 화, 수, 목, 금 |  |
|                              |      | 곽승민  |                       | 폐종양                      | 수                     |                     |                     |      |                    |                              |            |                 |                              |               |               |  |
|                              |      | 류정선  |                       | 폐종양                      | 화, 목                  | 월                   |                     |      |                    |                              |            |                 |                              |               |               |  |
|                              |      | 조재화  |                       | 폐종양                      | 수                     |                     |                     |      |                    |                              |            |                 |                              |               |               |  |
|                              | 흉부외과 | 이현규  |                       | 폐종양                      | 월                     | 목                   |                     |      | 외과<br>(☎2250)      | 김경래                          | *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                              | 월, 수          | 목             |  |
|                              |      | 남해성  |                       | 폐종양                      |                       | 화, 금                |                     |      |                    | 신석환                          | *          | 소화기외과, 위암       |                              | 월, 목          |               |  |
|                              |      | 김광호  |                       | 폐종양                      | 화                     |                     |                     |      |                    | 홍기천                          | *          | 혈관이식외과          |                              | 화             | 목             |  |
| 김장택                          |      |      | 폐종양                   | 월                        | 목                     |                     | 안승익                 | *    |                    | 해외연수(2009. 4 ~ )             |            |                 |                              |               |               |  |
| 정신과                          | 윤용한  |      | 폐종양                   | 수                        | 금                     |                     | 조영업                 | *    | 유방, 내분비외과          | (월), (목), (토), (수), (금), (일) |            | □여성암센터<br>△비만센터 |                              |               |               |  |
|                              | 이영지  |      | 불안장애                  |                          | 화                     |                     | 김세중                 | *    | 유방, 내분비외과          | 수                            | 금          |                 |                              |               |               |  |
| 당뇨내과<br>(☎3360, 2215)        | 이건영  | *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 수                        | 금                     |                     | 흉부외과<br>(☎2280)     | 김광호  | *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 화(목), 목    | 화               | ■폐암센터<br><br>□여성암센터<br>△비만센터 |               |               |  |
|                              | 김성민  | *    | 당뇨병, 비만, 내분비          | 월, 화 (목), 금, 목           | 목                     |                     |                     | 백완기  | *                  | 심장질환, 혈관질환                   | 금          | 화               |                              |               |               |  |
|                              | 남문석  | *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 화, 목                     |                       |                     |                     | 김장택  | *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 월(목)       | 월, 목(목)         |                              |               |               |  |
|                              | 홍성빈  | *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 수, 목                     | 월 (화), 수              |                     |                     | 윤용한  | *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 수(목)       | 수, 금(목)         |                              |               |               |  |
|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br>(☎3360, 2215) | 김소현  | *    | 당뇨병, 내분비, 비만          | 월, 수                     | 화, (수), 금             |                     | 김영삼                 | *    | 일반흉부질환             |                              | 금          |                 |                              |               |               |  |
|                              | 김용성  | *    | 당뇨병, 비만, 내분비          | 월, 화 (목), 금, 목           | 목                     | 비만센터                |                     |      |                    |                              |            |                 |                              |               |               |  |
|                              | 남문석  | *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 화, 목                     |                       | *임상시험센터             |                     |      |                    |                              |            |                 |                              |               |               |  |
|                              | 홍성빈  | *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 수, 목                     | 월 (화), 수              | △갑상선초진료사            |                     |      |                    |                              |            |                 |                              |               |               |  |
| 신장내과<br>(☎ 2229)             | 김소현  | *    | 당뇨병, 내분비, 비만          | 월, 수                     | 화, (수), 금             |                     | 신경외과<br>(☎2370)     | 박종은  | *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 화, 목       | 월, 목            | *사이버나이프센터                    |               |               |  |
|                              | 김문재  | *    | 신장질환, 고혈압             | 월, 목                     | 화                     | 혈액투석진료              |                     | 박형천  | *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 월, 수       | 수               |                              |               |               |  |
|                              | 이승우  | *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 화, 금                     | 월, 수                  |                     |                     | 김은영  | *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 월, 수       | 월, 수            |                              |               |               |  |
|                              | 송준호  | *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 수                        | 월, 목, 금               |                     |                     | 박현선  | *                  | 뇌종양, 경동맥류, 뇌모양, 뇌혈관기형        | 월, 수       | 월, 수            |                              |               |               |  |
|                              | 권수현  | *    | 신장질환                  | 금                        | 수                     |                     |                     | 현دون | *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 월, 화(수), 목 | 목(화)            |                              |               |               |  |
|                              |      |      |                       |                          |                       |                     |                     | 윤승환  | *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 수, 금       | 화, 금            |                              |               |               |  |
| 신장이식클리닉<br>(☎ 2533)          | 김문재  | *    | 신장이식                  | 수                        |                       |                     | 일 반                 | 김정민  | *                  | 척추질환                         | 금          | 화, 금            |                              |               |               |  |
|                              | 김문재  | *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 월, 화, 수, 목, 금            | 월, 화, 수, 목, 금         | 클리닉과 병행             |                     | 일 반  |                    |                              | 화, 금       |                 |                              |               |               |  |
|                              | 이승우  | *    | 혈액투석진료                | 월, 화, 수, 목, 금            | 월, 화, 수, 목, 금         |                     |                     |      |                    |                              | 월, 목       |                 |                              |               |               |  |
|                              | 송준호  | *    | 혈액투석진료                | 월, 화, 수, 목, 금            | 월, 화, 수, 목, 금         |                     |                     |      |                    | 화, 수(목), 금(수)요일              |            |                 |                              |               |               |  |



# Cyberknife



##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 |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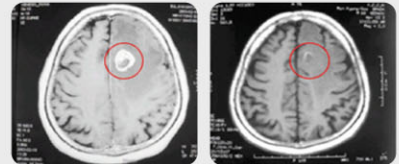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초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가능한 질환

- | 뇌종양 |** 양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비뇨기계암,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전이성 간암, 전이성 폐암 등
-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정맥기형, 해면혈관종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합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방사선 조사량으로 고령 및 몸이 불편한 환자들도 3~5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치료 받을 수 있으며, 1회 치료시간은 1~2시간이고 불규칙한 모양이나 크기가 큰 종양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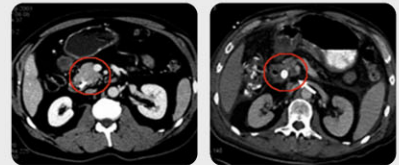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치료



▲ 치료전

▲ 치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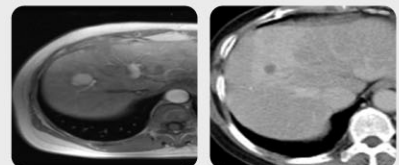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 치료전

▲ 치료후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 치료전

▲ 치료후